

### “닭 · 오리 사육농가 힘내세요” 동대구농협, 소비촉진 행사

대구 동대구농협(조합장 백덕길)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 사육농가를 돕기 위해 3월 25~28일 본점 하나로마트 특판장에서 닭 · 오리고기와 달걀을 할인판매하는 ‘AI 피해농가돕기 가금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대구농협은 국내산 가금산물의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유황닭 · 삼계탕 등 시식코너를 운영하며 30~50% 할인판매행사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판촉지원 활동을 벌였다. 백덕길 조합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 · 오리고기 소비부진으로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도시농협이 소비촉진에 앞장서 농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 농민신문 김용덕 기자 [2014. 04. 02]

### “우리 닭 · 오리고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경기 양주축협(조합장 윤기섭)은 4월 4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닭 ·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 김인태 NH농협 경기 의정부시지부장, 최영달 의정부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해 닭튀김과 구운 달걀을 나눠 주며



소비를 호소했다. 윤기섭 조합장은 “닭 · 오리는 익혀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용기를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이인아 기자 [2014. 04. 09]

### AI · 축산 환경규제 강화 장기적 농가 경영악화 [인터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



“현재 축산업이 AI로 인한 살처분, 전축종에 걸친 경기 침체, 생산비 상승, FTA로 인한 수입축산물 급증 등의 다중고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협의회장 직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축산 현안 타개를 위해 학계 · 업계 · 산업 종사자 등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 조연에 귀 기울여 지혜를 모아 축산업을 농촌경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연임된 이창호 협의회장(한국오리협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창호 회장은 “현재 축산업은 장기화된 AI와 경기침체, 축산업 환경문제, 축산 강대국들과 연이은 FTA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로 대부분 축산물 판매로 얻는 수익이 생산비를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단체장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연이은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 협상과 타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의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 등 정부가 내놓은 유명무실한 대책으로는 산업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분뇨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축산업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축산경제 [2014. 04. 04]



새끼오리는 두 손으로 감싸서 들어 올리거나 잡으면 손쉽다. 그러나 성장한 오리는 한 손으로 목 부분을 가볍게 쥐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 깊숙이 손

가락이 다리부분까지 닿도록 해서 들어 올리는데 다리를 꼭 잡으면 좋지 않다. 또한 뒤쪽에서 오리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 들어 올린 오리는 머리가 겨드랑이 쪽으로 향하도록 가슴을 받치면 되고, 이때는 오리의 머리가 겨드랑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방법이 있다. 또한 두 손으로 오리를 감싼 뒤 머리가 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정적이다. 오리는 다리를 잡는 것이 금물이다. 오리다리는 골절 등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두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면 안 된다.

▶ 현대축산뉴스 [2014. 04. 04]

## 돼지고기값 급등... 온라인 마켓서 한우 · 오리 · 닭 등 대체 육류 판매 증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요가 급증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체 육류를 찾

### [오리칼럼] 핸들링(handling)

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마켓에서 ‘금겹살’이 된 삼겹살 대신 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고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다시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최근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주보다 5%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한우·오리고기·닭고기 등의 판매는 크게 증가했다. 이 마켓에서 최근 일주일 간 한우의 판매는 부위별로 최대 3배 가까이 늘었다. 목심·앞다리살 판매량은 전 주 대비 194% 급증했으며 한우 갈비는 185% 늘어났다. 사골·꼬리·우족 판매량도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훈제오리 판매량은 5배 이상(415%) 늘어났고, 생오리·로스용 오리 판매량도 2배 이상(1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계탕 판매량은 76%, 생닭·볶음탕용 닭고기는 38% 늘어났다. 훈제치킨·통닭과 닭갈비·찜닭의 판매량은 각각 37%, 330% 증가했다. 4월 3일 G마켓 축산 베스트셀러에는 닭갈비가 1위로 랭크되었으며, 훈제 닭가슴살 등도 10위권 내에 올랐다.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된 것도 오리고기, 닭고기 수요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 메트로신문 [2014. 04. 06]

장동 울산농산물유통센터는 AI 확진(1월17일) 판정 이후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던 닭고기 판매량은 이달 들어 지난해보다 10.5%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마트 울산점 역시 AI 발생 직후 지난해 동기대비 25~40%대의 감소세를 보이던 닭고기 판매량이 4월부터 5~10% 가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4곳의 홈플러스도 닭고기 판매가 이달 들어 20%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리고기 역시 훈제육을 포함해 16%의 판매 신장세를 올렸다. AI의 직격탄을 맞았던 닭·오리고기 전문점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남구 삼산동 치킨전문점 대표 최현욱씨(49)는 “AI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언론을 통해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서 점차 소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상일보 전상헌 기자 [2014. 04. 14]

**허울뿐인 살처분 보상…  
오리농가 두 번 울린다**  
[칼럼]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AI로 인해 수많은 오리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오리를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더 많은 오리농가들을 위해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은 오리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살처분보상금은 물론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재기를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허울뿐이라는 점이다. 갖가지 이유 때문에 온전히 보상

**닭·오리 소비 차츰 회복…  
음식점에도 발길**

닭과 오리고기 소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 14일 북구 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 규정을 떠나 산업을 위해 희생당한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 줘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보상금 깎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축산신문 [2014. 04. 16]

## AI 종식 후 닭·오리 가격 하락 우려... 대책 필요할 듯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닭·오리 가격이 상승 중에 있지만 AI 종식 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월평균)은 지난 2월 1473원에서 4월 1906원으로 29.3% 올랐고, 오리는 2월 6000원에서 4월 8500원으로 41.6%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계는 AI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매몰 처분된 알이 많아 입식이 지연된 것이 가격이 오른 원인”이라며 “오리의 경우 AI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오리가 많아진 것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I종식 후 가금류 입식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가격 하락과 질병관리 소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강병규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5월부터 야외활동 증가와 월드컵 특수, 여름철 보양식 수요 등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증가는 가금류 입식 증가로 이어져 가격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가격의 호황을 누리기 위한 무분별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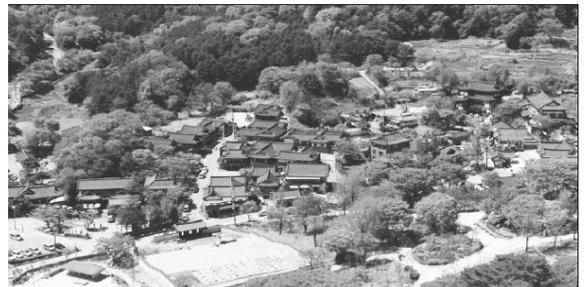
금류 입식은 질병 예방 및 예찰 활동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AI 발생 사례를 살펴봐도 종식 후에는 닭과 오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3차 발생(2008년4~5월)의 경우 AI발생 직전인 3월 산지 육계가격은 1444원이었고 종식후인 6월에는 1408원으로 2.5% 하락했다. 4차 발생(2010년12월~2011년5월) 때는 AI가 한창이던 2011년 3월 육계가격이 2414원에서 6월에는 1389원으로 42.5%, 오리는 9280원에서 7773원으로 16.2% 떨어졌다. 이에 닭과 오리에 대한 수급조절과 질병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생산자는 가금류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방지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및 수급조절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 및 예찰활동을 유지하는 등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2014. 04. 16]

## 남한산성 닭·오리 전문 한식거리 조성



광주시 남한산성 한식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4월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해 우수한 ‘음식테마거리’ 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응모, 1차 발표(PPT) 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연간 200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맞물려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식(닭·오리)거리를 신청, 함평 천지 한우 비빔밥거리와 포항 구룡포 과메기물회거리 등과 함께 최종 선발됐다. 앞으로 남한산성 한식거리는 남한산성 성곽내(산성리) 65개소의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테마별 특색 있는 음식거리로 조성해, 남한산성 전통한식 고급화와 대표메뉴 개발로 우수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문화유산 남한산성에 걸맞은 전통 한식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인천일보 장은기 기자 [2014. 04. 17]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밥 한 끼에 행복해 하며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눔이 어렵지 만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식사 제공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 김성훈기자 [2014. 04. 21]

### 군포 오리탕 전문점 ‘오작교’ 어르신 초청 점심 제공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오리탕 전문점 오작교가 최근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어르신 10여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오작교 이영신 대표의 나눔으로 이뤄졌으며 요양센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 중 일반식 식사가 가능한 어르신들

### 진천축협, 시피해 가금농가에 기자재 지원 진천군 오리·양계협회장에 7천500만원 전달

진천축협(조합장 박승서)은 지난 4월 14일 마낙중 한국오리협회 진천군지부장, 최창석 진천군양계협회 회장에게 7천500만원을 전달, 진천군내 가금사육 44농가(오리, 양계)에 필요한 기자재(툽밥, 발효제, 첨가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독약도 무료 지원했다. 지원 대상 농가별 지원액은 AI로 살처분한 20농가에 5천100만원, 가금사육 24농가에 2천400만원이다. 박승서 조합장은 “2월초에 발생한 AI로 진천군내 가금농가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오리, 닭 사육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진천축협은 앞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조합

원들이 축산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4. 04. 23]

## AI 등 전염병 발생 때 살처분 가축은 시세의 80% 보상하는데... 사료 폐기땀 40%만 보상 “너무 적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폐기처분하는 사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 한국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진 판정으로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 가축은 시가의 80%, 사료는 4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시세의 80%를 받더라도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닌데, 평소 비축량이 많은 사료에 대한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낮아 사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계열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닭과 오리를 기르는 위탁

사육농가(전체 농가의 90%)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AI 발생으로 사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사료 값 60%를 위탁농가가 업체에게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에서 오리를 위탁사육하는 한 농가는 “최근 AI 양성판정을 받아 시가 5800만원어치의 사료 100t을 전량 폐기했다”며 “그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20만원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3480만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다”고 털어놨다. 보상받지 못한 사료 값 3480만원을 계열업체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몽땅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료 보상금 지급기준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설사 향후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높이더라도 이번에 AI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은 정부가 관련 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 사료 보상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계열업체도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40%라는 사료 보상금 지급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AI가 종료된 이후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4. 04. 23]

### 말뿐인 축사 소방시설 규제 개선

축사에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정부가 아직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에는 소방시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축산농민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무허가 축사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축사에 피난구유도등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상구’라는 글씨를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축이 ‘비상구’를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자 이런 시설을 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이 시설을 면제하기로 한 소방관련법안을 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는 했음에도 관련부처에는 금년중으로 하겠다는 계획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축사에 이른바 ‘비상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축사로 낙인찍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더 이상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도 요망하고 있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 04. 23]

### 무허가축사 면적 따라 행정처분 면제 조치

무허가축사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양축농가라도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축산단체는 행정조치 제외대상 무허가 축사 면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키 위한 협의에 착수, 내달 중 합동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중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개정 공포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소규모 무허가 축사의 경우 행정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축산단체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 규모가 명확치 않아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발효될 경우 일선 양축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축산단체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구체적인 면적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사는 행정조치 제외 무허가축사의 면적이다. 가축분뇨법 개정 이전 환경부는 소규모사육농가가 보유한 무허가 축사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축산단체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축사면적의 50% 이하 규모의 무허가축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측에서 중재안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무허가축사면적이 500㎡를 넘지 않는 경우는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면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최소한 환경

부가 제안했던 면적 이상은 돼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4. 04. 23]

##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하겠다”



정부가 계열화업체와 농가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4월 21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닭고기 수급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4개 원종계 회사(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원종계 쿼터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종계 분양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계육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원종계 4개 회사는 원종계를 2011년 수입실적 대비 32.2%를 자율도태를 통해 감축한 후 수입량을 연간 16만2천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종계 분양실적을 보면 707만5천수로 2012년에 비해 7.4%가 늘었다. 원종계가 줄었지만 종계 배부율이 지켜지지 않아 분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종계

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계열화업체에서 도계장을 증설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해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원종계 업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8~9kg 수준일 때부터 꾸준히 소비량이 늘어났으며 현재 약 12.5kg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늘어날 줄 알았던 기대심리로 종계 분양이 늘어났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거의 없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종계장에서 강제환우 및 생산연장을 금지하고 68주령 이전에 생산된 육계만 분양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한 두 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열화업체 입장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종계가 폐사할 경우 육계농가와 의 계약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 무작정 환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우선 사용이 지지부진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하면서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서기관은 “앞으로 양계협회, 계육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중재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권장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수급조절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달라”며 “잘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와 정책자금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4. 23]

### AI ‘철통방역’시스템 구축 만전

수그러든 줄 알았던 AI가 또 다시 충북 진천과 경북 울주 등에서 발생해 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크게 ▲사전예방 ▲발생대비 ▲제도·조직으로 나눠 마련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예방을 위해 AI 위험지구 설정 및 축사 허가를 제한하고, 국제 공조 및 철새 경보체계 구축, 여행객·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집단 사육단지 특별관리, 가금농장 리모델링,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AI 검사체계를 정비하고,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및 GPS 차량관리 고도화, 역학조사 체계 정비, 살처분 범위 및 스탠드스틸 발동기준, 방역대 및 이동통제 범위, 분노 및 분노차량, 사료차량관리 등에 대한 SOP 보완도 새로 마련중에 있다. 방역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 지자체 지원체계 정비, 정책 기능 재정비, AI센터 설치 등 지원제도 개선과 방역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 04. 28]

### “의무자조금 출범...오리산업 위축 막자” 오리협, 1차 이사회 개최 의무자조금 출범 시기 논의



오리업계의 AI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살처분 두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4월 23일 제2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AI현안을 비롯해 오리의무자조금 출범 시기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AI로 인해 251호 농가에서 총 300만수가 넘는 오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중 종오리가 51만수로 현재 남아있는 종오리 마리수가 48만2천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리고기 최대 성수기인 5월을 앞두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업자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종오리 살처분 수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끼오리가격이 폭등해 향후 무분별한 F1오리 입식이 가중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오히려 과잉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철저한 F1오리 근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5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사업결산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한 이후 곧바로 의무자조금 대의회를 개최해 거출금액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4. 28]

## ◎ 오리소비촉진 홍보관련 언론보도 현황 ◎

2014년 3월 25일 ~ 4월 25일 기준

연번	배포일	언론사	제 목
170	3월 31일	중부일보	NH 안양시지부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촉진 캠페인
171	4월 02일	농민신문	“닭·오리 사육농가 힘내세요” 동대구농협, 소비촉진 행사
172	4월 03일	경남도민일보	농협 사천시지부 오리·닭 소비촉진 운동
173	4월 09일	농민신문	경기양주축협,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174	4월 08일	경기신문	오산 곁동 황제오리, 관내 어르신 점심식사 대접
175	4월 10일	경향신문	NS홈쇼핑, 소·돼지·오리·닭...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176	4월 17일	경기일보	군포 오리탕 전문점 ‘오작교’ 어르신 초청 점심 제공

## ◎ AI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현황 ◎

2014년 3월 25일 ~ 4월 25일 기준

연번	배포일	제 목
92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 및 AI 매몰지 현지점검
93	3월 31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94	4월 23일	충북 진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 발생